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Consumer Insight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Travel Report `19)

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문 의	김민화 연구위원/Ph.D	연 락 처	02) 6004-7643
배 포 일	'19년 11월 26일 (화) 배포	매 수	자료 총 3매

해외여행 소비심리 급랭, 국내는?

- 컨슈머인사이트, 여행비 지출의향 추이 분석
- '해외여행비 늘리겠다' 3년만에 최저치
- 경기침체와 No재팬 영향 하반기 감소폭 커
- 국내여행도 경기침체로 하락세

소비자들의 여행 지출 심리가 냉각되고 있다. 'No 재팬' 영향으로 일본여행이 격감하면서 일본뿐 아니라 전체 해외여행 지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국내여행도 반사이익 없이 하락해 여행관광 산업 전반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16년 매주 300명-연간 14400명, 17년 이후 매주 500명-연간 26000명)에서 향후 1년간 여행관련 소비지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묻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여행비 지출의향'은 향후 1년간 여행관련 소비지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물었을 때 '늘릴 것'(매우 또는 약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 여행비 지출의향 하락 추세 지속

여행비 지출의향은 두 차례의 장기휴일(5월 징검다리 연휴, 10월 추석연휴)이 있던 2017년 급상승했다. 해외 43.2%, 국내 38.5%로 2016년 대비 각각 4.9%p(포인트), 2.8%p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림1]. 그 다음해인 2018년에 해외는 42.3%(-0.9%p)로 전년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내는 36.0%(-2.5%p)로 하락해 2016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아직 2019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1월~10월까지의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해외여행비 지출의향은 39.2%로 전년대비 3.1%p 떨어졌다. 하락폭이 지난해(0.9%p)의 4배 수준이다. 한편, 국내여행비 지출의향은 34.5%로 1.5%p 감소해 작년 2.5%p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 'No 재팬'이 찬물 뿌린 해외여행 심리 회복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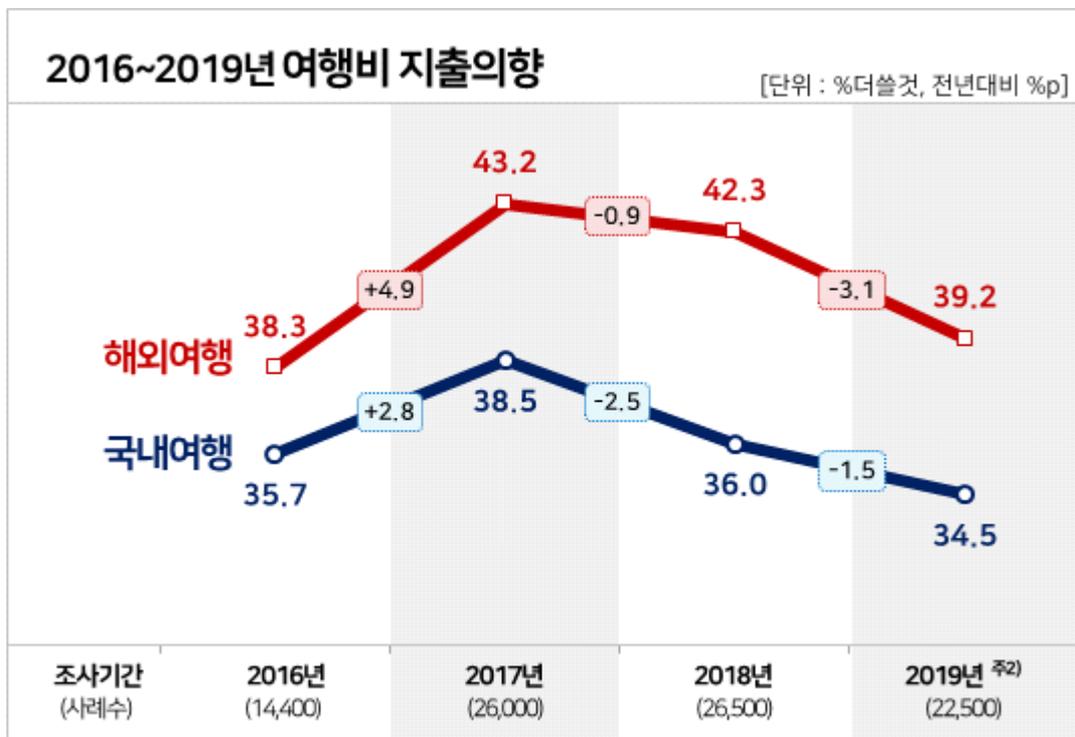
2019년 결과를 월별로 들여다보면 'No 재팬' 이후 여행심리에 나타난 변화를 확연히 읽을 수 있다[첨부]. 1~6월 해외여행 지출의향은 40% 내외(39.8~40.9%)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7월 인기 해외 여행지인 일본에 대한 여행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며 해외여행 지출의향이 전월대비 3.2%p 하락한 37.5%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5월(33.3%) 이후 37개월 만에 최저치이며, 3개월이 지난 10월까지 별다른 반전 조짐이 없다. 반면, 국내여행 지출의향은 2019년 10개월간 큰 하락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No재팬 운동이 여행시장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컸다. 여행수요가 동남아 등 일본 외 지역으로 상당 수 대체되기는 하였지만 3%p 이상 하락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보다 해외여행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의향은 2017년을 기점으로 더 커져 4.7%p까지 확대되고, 2018년에는 6.2%p 차이까지 벌어졌다. △장기 연휴 외에도 △저비용항공사(LCC) 확대로 항공료 부담이 줄었고 △일본·대만·베트남 등 근거리 지역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단기간 여행이 많아진 것도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다.

계속 커지던 해외-국내 지출의향 격차가 모처럼 줄어 2017년 수준의 차이(4%p)로 돌아왔으나, 해외여행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을 국내여행이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주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때문이지만, 해외여행의 가성비가 더 낫다는 소비자 평가의 영향도 크다. 한번 돌아선 소비자 마음을 돌려 세우기란 쉽지 않다. 국내여행 경쟁력 향상이 선행되어야만 집나간 토끼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국내 및 해외여행비 지출의향



Q 국내/해외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 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1) 컨슈머인사이트가 기획운영하는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조사'의 결과로, 매주 500명(16년 300명)씩 조사함.
 주2) 19년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결과만을 반영함.

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000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2018-2019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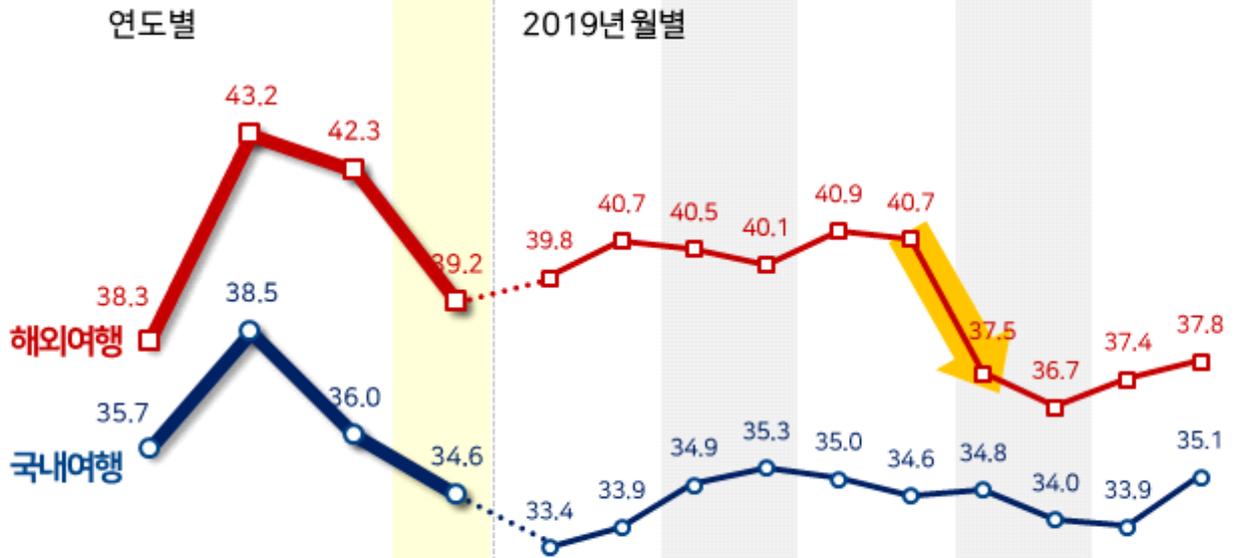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
조혜원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	johw@consumerinsight.kr	02)6004-7631

[첨부] 2019 여행비 지출의향 (월별)

2019년 여행비 지출의향 (월별)

[단위 : %더쓸것]



조사기간	16년	17년	18년	19년(주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례수)	(14,400)	(26,000)	(26,500)	(22,500)	(2,000)	(2,000)	(2,000)	(2,500)	(2,000)	(2,000)	(2,500)	(2,000)	(2,500)	(2,000)

Q. 국내/해외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1) 컨슈머인사이트가 기획운영하는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조사의 결과로, 매주 500명(16년 300명)씩 조사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연간 자료) ±0.5%p, (월별 자료) ±1.3%p임.

주2) 19년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결과만을 반영함.